

<찾아오시는 길>

● 낙성대역(후문입구)

● 행정대학원
● 경영대

● 서울대입구역

● 대운동장

▶ 서울대학교 정문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문화관

● 대학본부

201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동여지도 간행 150주년 특별전

2011.
8. 23.
—
12. 17.

조선을 그리다

조선을 만나다

지도 ·
길 ·
여행
이야기

Drawing Joseon,
Encountering Joseon:

Stories about Maps,
Roads and Travel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103동
tel. 02-880-5317 fax. 02-883-3012
<http://e-kyujanggak.snu.ac.kr>



■ 조선을 그린다

2011년은 <대동여지도>를 간행한지 150주년인 해입니다.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는 1861년에 조선시대 지도 발달의 성과를 집대성한 <대동여지도>를 목판으로 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대동여지도>의 수정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1864년 갑자본 <대동여지도>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처음으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대동여지도> 6종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곧 1861년부터 1864년까지 수정 작업 속에 변화하는 <대동여지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최고의 지도를 향한 노력 속에 탄생한 <대동여지도>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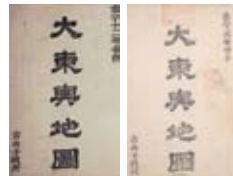
2011 marks the 150th anniversary of the publication of <Daedongyeojido>. Go San-ja Kim Jung-ho published <Daedongyeojido> as a block book, the result of advancement on the development of maps of the Joseon dynasty, in 1861. For 3 years since, <Daedongyeojido> had been modified constantly and Gabjabon <Daedongyeojido> had finally published as an outcome in 1864. In this special exhibition,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will showcase the six panels of the <Daedongyeojido> housed here for the first time and it will be unveiled its alterations process from 1861 to 1864. We hope that this opportunity will serve as a chance to display the Joseon dynasty's effort in creating the best map.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동여지도》 6종



필사본(상단) :
《대동방여전도(奎 10341)》,
《대동여지도(奎 12380, 古 4709-4)》



목판본(하단) :
1864년(갑자본)
《대동여지도(古 4709-6)》,
1861년(신유본) 《대동여지도
(古 4709-5, 奎 10333)》

1861년 신유본
1864년 갑자본

■ 조선을 만나다

지도에 그려진 땅, 그 길을 따라 조선을 만난 다양한 여행을 전시실에 담았습니다. 나라의 지존인 임금은 궁궐 밖 어디로 나들이를 했을까. 규장각에서 영남서리인 권계만을 무슨 일로 불러 들였는가. 옛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땅을 벗어나 바깥세상 나들이를 하였을까. 한말 조선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우리의 산천과 풍속을 어떤 시선으로 보았을까. 조선의 명승, 금강산은 언제부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따라 길을 떠나 볼까 합니다.



영괴대도靈槐臺圖

Following the path drawn out by the land on the map, we will embark on a journey to meet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 exhibition hall. Where had a king, the supreme authority gone outside the palace? Why did Kyujanggak summon Mr. Gwon Gyeman who was a Yeongnamseori? How did our ancestors explore the outside world? What did the foreigners who came into Joseon at the late Joseon era think of our nature and custom? Since when did the Joseon's scenery and Geumgang Mountain receive the love from the people? We intend to embark on this journey with such questions in mind.



조선풍속첩서 8장짜리